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8월 30일 (제1373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칼럼

예배의 3대 요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전14:26).

음악의 3요소가 리듬, 선율, 화성이듯, 예배의 3대 요소도 있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다.

예배는 먼저 찬송으로 마음 발을 갈아야 한다. 마음 발에 돌을 캐내고, 굳어진 심령을 깨트리고, 메마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시간이다. 뜨거운 찬양은 성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게 한다. 심령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먼저 찬양의 시간을 갖는 이유다.

그리고 설교다. 설교는 찬양으로 잘 갈린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는 것이다(눅8:11). 찬양으로 이미 옥토가 된 땅에 씨를 뿌려야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 밭이 갈리지 않은 곳에 씨가 뿌려지면 새가 와서 먹거나 돌밭에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기도는 뿌려진 씨에 물을 주는 것이다. 씨앗이 땅에 심겼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받아야 자란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 기도가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씨는 말라 버리기 쉽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다.

그러므로 예배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밭을 갈았는데 씨를 뿌리지 않아도 열매가 없고, 씨를 뿌렸는데 물을 주지 않아도 자라지 않아 열매가 없다. 찬송 없는 말씀은 메마르고, 말씀 없는 찬송은 감정에 머물며, 기도 없는 예배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함께할 때 우리의 심령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요, 살아 있는 예배다.

예배의 3대 요소는 단순한 순서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 가는 통로인 것이다. 찬송으로 밭을 가꾸고,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기도로 잘 자라게 하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지난 2012년 대구 엑스코에서 예수전도집회를 배설한 대구예수중심교회 담임 한송이 목사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부터도 거의 매년 대구전도집회를 열어오셨기에 그 이유가 궁금했었거든요. 한송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래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었지만 성령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형식적인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데 이초석 목사님의 설교데이프를 접하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후, 그분의 집회에 참석하여 성령을 받고 방언기도를 하게 된 다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지금까지 그 힘으로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도집회를 자주 열어서 이 지역 사

결 봅니다. 이시대 목사님 스스로도 미션스쿨까지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성령을 몰라 무늬만 크리스천인 신앙생활을 해오다 기도원을 방문한 첫날,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성령을 받은 이후, 180도 변화된 분명한 체험이 있기에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는 한 죽는 날까지 성령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은 80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수를 전할까 전국과 전 세계를 누비시며 전도집회를 지속하고 계시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하나

도집회가 열립니다. 10월 중순에는 미국 시애틀과 휴스턴에서, 11월에는 추계산상집회가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쉴 새 없이 계속됩니다. 오직 목적은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만들고, 그리하여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지구촌의 영혼들을 천국으로 대탈출시키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지역에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한다면, 우리도 이시대 목사님 말씀처럼, 선교하는 마음으로 직접 집회에 참석하거나 영혼을 전도하거나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할 형편이라면 집회에

2026 이초석 목사

아산 이순신체육관 집회

9월 4일(금) 오후 2시

아산 이순신체육관

02.533.9191

람들 가운데 예전의 나처럼 성령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몰라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영혼들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산다면 그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 워딩을 정확히 옮긴 것은 아닐 수도 있으나 그 당시 한송이 목사님의 목적인식은 분명 이러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해 봄, 여름, 가을 세 차례에 걸쳐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산상집회를 엽니다. 그때 이시대 목사님은 주어진 시간이면 반드시 기도원을 찾은 성도들에게 성령세례를 주는 기회로 삼는

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몸 가운데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는 소식이니 이보다 더 크고 놀랍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두 달에 한 번씩 해외집회를, 그리고 그 사이에는 국내집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복음의 사명을 다하시려 몸부림치십니다.

오는 9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충남 아산의 이순신체육관에서 예수전도집회가 열립니다. 이어 10월 9일에는 청주 무심천 톨러스케이트장에서 역시 예수전

필요한 물질을 대거나 그 지역 친지에게 전화라도 걸어 참석을 독려하거나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지난 주일 목사님과 함께 찬송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너를 보았노라’ 칭찬하시고 그날에 상급으로 보상해주실 것 아닙니까?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 가든지, 보내든지 모두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계속되는 집회에 적극 동참하여 성령이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날짜: 2026년 9월 4일(금), 오후 2시

장소: 아산 이순신체육관

문의: 02. 533. 9191

아산 이순신체육관 집회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1:1~6)

생사화복은 내가 선택한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신30:15).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사화복을 두셨고, ‘너희 맘대로 택하라’ 하십니다.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지요? 누구나 생명과 복을 택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선악이 공존한다 다스림은 내 의지에 달렸다

그런데 생명과 복을 택하고도 실제 삶에서는 사망과 화를 거두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할까요? 그건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은 이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두 마리 짐승이 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짐승입니다. 이 둘은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늘 싸우는 데, 누가 이기느냐?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꼭 이깁니다. 선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선이 악을 이겨 선한 자가 되고, 악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악이 선을 이겨 악하고 거짓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이란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것, 그래서 선이 악을 이기게 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나와와 싸움이 동반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할 때 ‘미쳤어? 내가 왜?’ 하는 나와와 싸움이거든요. 나와와 싸움에서 이길 때 십 리를 가주게 되지요. 왼뺨을 맞으면 바로 양쪽 뺨을 쳐서 갚아주는 것은 반사적으로 일어나지만, 오른뺨까지 대주는 것은 나와와 싸움이거든요. 세상 모든 싸움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싸움이 쉽습니다.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가 보이니까. 그런데 나와와 싸움은 싸울 상대가 나이므로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니까 봐주거든요. 나니까 용납하거든요. 나니까 이해하고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최대의 적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7:21~24) 하며 탄식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외 없이 두 마리 짐승으로 인해 늘 고심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란 남의 강요 없이 내가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에게 먹이를 주는 것, 악에게 먹이를 주는 것, 그것은 내 자유의지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젠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린 다음 요셉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요셉의 마음에도 두 마리의 짐승이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나, 아니면 열심히 살아 기회를 엿볼 것이냐?’ 그러나 요셉은 악이라는 짐승은 아예 아사시키고 선이란 짐승만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열심히, 진실되게 일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 ‘타협할까? 진 실 될까?’ 두 마리

중
당 연
히 선을
택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사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을 볼까요? 삼손은 요셉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환경에 던져졌지만, 그 환경 속에서 선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 악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삼손의 마음속에도 ‘절제할 것이냐, 내 욕망대로 살 것이냐?’ 두 마리의 짐승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힘의 근원을 물었을 때 엉뚱한 말로 몇 번 대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삼손은 선의 짐승을 키우기보다 욕정의 짐승을 키웠습니다. 들릴라에 대한 욕정과 미련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블레셋 군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요셉도 자기 의지대로 선택했고, 삼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선을, 삼손은 욕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신을 좇는 자는 욕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욕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8:5~6).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나와의 싸움입니다. 광주 예수중심교회에 어느 장로가 저에게 ‘어떻게 해야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
느냐?’고
물길래, 제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나와 싸워 이기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는 이렇듯 아승(我勝)이라 개명하고는 열심히 헌신 봉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이기면 세상에 못할 게 없습니다. 악으로 향하는 나를 이기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게으른 나를 이기면 부지런하여 목적인 바를 이룰 것이고, 대충하는 나를 이기면 뭐든 완전할 수 있고, 거짓된 자를 이기면 진실된 자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잠시 배고픈 나를 이기지 못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 순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한 다윗, 세상적인 야망을 이기지 못한 가룟 유다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들 모두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스스로의 삶을 만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야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여 하나님을 속였고, 그 일로 인해 같은 날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악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심하거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7:25~8:2). 결국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는 것만이 답입니다. 성령을 힘입을 때 악으로 달려가는 나를, 유혹이 심한 세상으로 향하는 나를 이겨 선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8:12~14).

시편 1편의 말씀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시1:1~2).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려고 나와 싸워 이기고, 죄인의 길에 가지 않으려, 오만하지 않으려고 성령충만하여 말씀을 상고하여 나를 이기는 자가 복 있는 자요, 그러한 자가 받는 축복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시1:3)라는 것입니다.

나와 싸워 승리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福)과 화(禍)를 두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신30:19).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나와 싸워야 합니다. 나와와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즉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뤄집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늘 기도하여 성령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칼럼 ::

잠실 시대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8월 초 멀리 멕시코에서 엠마누엘 목사님이 방문했었죠? 기도원에서 올라와 하루 시간을 내서 잠실 올림픽공원과 메인스타디움, 학생체육관을 함께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해오셨는지 알고 싶다는 그의 요청에 목사님은 올림픽공원을 보여주라 하셨지요.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 속에 1989년 올림픽공원 첫 입성 후 예배를 드렸던 역도 경기장부터 펜싱경기장, 체조경기장, 테니스경기장과 사이클경기장까지 돌아보며 입장이 가능한 곳은 직접 들어가 경기장 내부를 보여주며 잠실 시절 우리 교회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체육관에 행사가 잡히면 다른 체육관으로 이동해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공원 내 모든 체육관에 행사가 잡혀 예배드릴 곳이 없었을 때도 몇 차례 있었지만, 우리가 기도하여 폭우가 쏟아지거나 갑자기 변고가 발생하여 행사가 취소되고 무사히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역사, 그리고 급기야 추운 겨울,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을 때, 공터에 트럭을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 설교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매 주일 이른 아침이면 신학생 및 안내위원들이 예배 준비를 위해 단상을 설치하고 의자를 깔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모두 철수해야 했던,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동하며 성소를 설치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광야 시절을 보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엠마누엘 목사

사는 그때마다 “와우, 와우” 하며 탄성을 내지르더군요.

그리고 금요일아예배를 통해 전국에 우리 교회를 알린 학생체육관과 메인스타디움을 보여주었지요. 두 장소는 공사 관계로 진입할 수 없었지만, 그 규모만 보고도 혀를 내두르더군요. 목사님이 목회 7년 만에 메인스타디움에 10만 명을 모아 집회했었는데, ‘당시 목사님의 나이가 엠마누엘 목사, 당신과 비슷한 연배였다’고 말하자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사실 저도 올림픽공원의 모든 경기장을 다 둘러본 것은 30년이 넘는 일이라, 엠마누엘 목사님이 탄성을 지르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와~, 그때 우리가 저절 다 어떻게 해온 거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저 역사는 우리 목사님이니까 하셨지, 다른 그 누구도 감당 못했을 거야. 우리 교인들도 여기를 한번 와보면 좋겠다! 그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신앙교육이 되지 않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세대가 어떠했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나온 흔적과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Henry Han

:: 신앙논객 ::

산 위에 있는 동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그 당시 인종에 따라서 거주지와 공공시설, 투표권까지 분리하고 차별하는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책을 종식시키기 위해 투쟁하다 정치범이 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간 옥살이를 한다. 그는 그중 대부분을 악명 높은 로벤섬 교도소에 수감되어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며 좁은 감방에서 지내야 했지만, 그 안에서도 흑인 해방의 의지를 꺾지 않고 동료 정치범들에게 역사, 정치, 법을 가르치고 토론하면서 감옥을 배움의 공간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다.

1990년 2월 11일 석방된 그는 당시 백인 대통령이 이끌던 정부와 협상을 계속하여 인종 차별 없는 민주주의 선거를 관철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1994년 흑인들까지 참여하게 된 총선거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마침내 인종 분리 차별 정책을 완전 폐지하게 된다.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자신이 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사는 것이다.”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감옥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위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했고,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어 많은 이들이 자유를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지역관리 예급 땅에 노예로 팔려 갔지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여 가정 총무가 되었고, 누명을 쓰고 잡혀들어간 궁중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복역하여 옥중 제반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그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이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다.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거나 현실을 부정하고 도망치려 했다는 이야기도 없다. 부모의 총애를 받다가 하루 아침에 노예와 죄수로 13년을 살아야 했지만, 그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이루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된다.

하루하루가 감옥 같고, 노예처럼 느껴지는가? 당신은 만델라처럼 세상에 이바지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빛어지는 중이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그 세상에서 먼저 빛을 발하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

신혁주 전도사

:: 책을 펴다 ::

당신의 근원은?

영국의 런던 템스강 근처에 있는 재판소 뜰에는 유명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이 포도나무에서 거둔 포도는 다른 지역의 것에 비해 월등히 맛이 좋아 식물학자까지 이 포도나무 종자에 대해 연구할 정도였다.

그런데 연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며, 모든 의문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템스강 밑바닥까지 뻗어 있다는 것이다. 포도나무의 뿌리가 멀리 강 밑바닥까지 뻗어 있어서 수분과 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기에 그렇게 맛있는 포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 우리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기만 하면 극심한 가뭄이 닥쳐와도 절대 목마르지 않게 된다.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 삶에 열매가 늘 부실했던 것은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다. 우물가의 여인이 뿌리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지난한 삶의 갈증을 일순간 해소했던 것을 보지 않았는가!

당신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라. 그리하면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며, 잎사귀가 푸르려 소나기에도 안식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근원이 좋아야 열매가 좋다. 가장 좋은 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 된다면 우리에게 더 바랄 것이 무엇이었나.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궁하지 말라 자궁할찌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롬11:18).

이초석 목사 저서 ‘사랑이 무르익어아 결혼에 골인한다’ 중에서



:: 낮은 올타리 ::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저는 올해 대학청년부 수련회의 조장을 맡아 여러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련회 목표 인원, 새신자 전도, 영혼 구원과 회복 등. 올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약 10년 동안 올해와 똑같이 목표를 정하고 적었습니다.

아쉽지만, 그 수많은 목표들은 이루어진 적보다 안 이루어진 적이 많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이 있는데, 수련회 기간에 제 친구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친구를 위해 매년 많은 기도와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둘 중 하나였습니다. 거절하거나, 온다고 했지만 당일에 일이 생겨 못 온다는 연락을 주거나.

이 때문인지 올해도 친구에게 연락을 하려는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올해라고 될까?’ 하는 부정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룬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생각하며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흔쾌히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한 시간 전, 친구한테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또 그러네, 이번에도 안 오겠구먼’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배는 시작

되고, 찬양도 다 끝나갈 때쯤 친구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10분 후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이렇게 일이 생겼다고 전하고도 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는 항상 수련회에 새신자를 데리고 가길 원했지만,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두 명의 새신자가 수련회 출발 당일에 결정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조원의 동생, 조원들의 친구들이 갑자기 추가되며, 우리 조는 제 예상 인원보다도 20%가 더 넘는 인원이 함께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목표를 이뤘다는 간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는 안 됐지만 오늘은 된다’는 총회장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산 집회와 청주집회를 앞둔 지금, 지난번 집회 때 전도하지 못했던 영혼이라도 이번에는 전도될 것입니다. 저번에는 어려웠던 것이 이번에는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부정의 생각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힘써봅시다!

장수정

시에는 없는 것

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상대로 1승을 거둔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최근 세계 바둑계는 인공지능(AI) ‘카타고’와 대한민국 신진서 9단의 맞대결로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인간이 2점을 먼저 놓고 시작한 접바둑이었지만, 결과는 신진서 9단의 2승 1패 승리였다.

알파고에 1승을 거뒀던 이세돌은, “AI는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수만 두며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사람은 손해처럼 보여도 가능성을 열어가게 전략적 판단을 한다.”고 평했다. 카타고에 승리한 신진서 9단 역시, “AI의 약점은 완벽함에 있다. 어려운 변화는 피하고 쉽게 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지점이 승리의 열쇠였다.”라고 밝혔다.

인간과 AI의 차이를 짚어낸 두 국수의 통찰을 통해 AI가 가질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의 위대한 가치를 알 수 있었다. 바로 ‘모험과 도전’이다.

모험과 도전은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 불확실하고, 때로는 실패의 위험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불확실함을 향해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모험과 도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고유한 특권이다.

총회장 목사님은 늘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도전과 모험 없이 미래는 없다. 배는 항구에 묶어두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가 두려우면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살라!”고 외치신다. 두려움을 넘어 모험과 도

전에 나서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성취와 참된 기쁨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다.

우리 신앙에도 도전과 모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듯, 하나님이 펼쳐주신 망망한 바다를 향해, 믿음의 노를 젓는 성도들의 신앙은 빛이 난다.

거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역사와 만선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

전호정 집사

:: 한국교회사 ::

일사각오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

주기철牧사는 1897년 11월 7일 경상남도 창원군 웅천면에서 아버지 주현성과 어머니 조재선 사이의 유복한 양반 가문의 4형제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본명은 주기복이었으나, 훗날 기독교에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뜻의 주기철(朱基徹)로 개명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 지역의 서당과 웅천 개통학교를 마친 후,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학교에 입학한 것이 그의 생애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오산학교는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운 민족 교육의 요람으로, 고당 조만식 선생 등이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철저한 민족의식과 기독교 신앙을 심어주던 곳이었다. 주기철은 이곳에서 조만식 선생의 인격과 가르침에 깊은 감화를 받았으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청년으로 성장하였다.

1916년 오산학교를 졸업한 그는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하였으나, 만성적인 안질(눈병)이 악화되어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좌절을 겪었다. 고향에서 믿음 좋은 안갑수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1920년 당대 최고의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가 경남 마산 문창교회에서 인도한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게 된다. 셋째 날 밤 집회에서 김익두 목사는 ‘성령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장내는 성령의 불길로 휩싸였다. “장님이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오!”

이때 주기철은 바윗돌보다 더 무거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갑자기 통곡과 함께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울고 또 울어도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헤매며 찾던 그 빛, 허망함 속에서 그렇게 갈망했던 그 존재를 드디어 찾은 것이다.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민족의 구원이 정치적 운동을 넘

어 영적인 각성과 기독교 신앙에 있음을 깨닫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1922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 공부를 하면서, 방학에는 고향 웅천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했다. 1925년 12월 22일 평양신학교 제19회 졸업생으로 졸업하고, 12월 30일에 열린 제20회 경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부산 초량교회의 초청을 받아 1926년 1월 10일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초량교회 재임 중 100명의 교인을 300명으로 부흥시키고, 경남노회 부노회장을 세 차례 역임했다. 부산 초량교회에서 6년, 고향 마산 문창교회에서 5년 동안 담임목사로 사역하였고, 경남노회 노회장을 지냈다. 가는 곳마다 철저한 말씀 중심의 설교와 성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고 지역 사회의 교육 운동을 주도하며 큰 존경을 받았다.

1933년 5월 안갑수 사모는 34세에 병사하였고, 1935년에 그가 담임하던 마산 문창교회의 집사 오정모와 재혼하였다. 1936년, 스승 조만식 선생의 강력한 권유로 당시 북한 지역 교회의 중심이자 민족 운동의 거점이었던 평양 산정현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다.

193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조선인들의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 정점에는 일본 국왕의 조상 등에게 절을 하게 하는 ‘신사참배(神社參拜)’가 있었다. 일제는 종교 단체들을 압박하였고, 결국 1938년 9월 장로교 총회마저 이를 수용하고 가결하는 부끄러운 배교 행위를 범하게 된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는 타협하지 않았다. 그는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로 보았고, 조선 민족의 영혼을 말살하려는 행위로 간주했다. 그는 산정현교회 강단과 여러 부흥회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선포하며 성도들을 일깨웠다. 산정현교회에 부임한 주기철 목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신사참배를 한 신도는 지위와 직분을 불문하고 출교한다’는 당

회 결의를 이끌어낸 것이었다.

신사참배 거부 운동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주기철 목사는 일제 경찰의 집중적인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 그는 1938년 봄 제1차 구속을 시작으로, 평양노회 참배 결의 거부 등으로 인해 총 4차례에 걸쳐 검속(체포)되어 투옥되었다. 일제는 교회를 강제로 폐쇄하고 그를 목사직에서 파면하도록 노회를 압박하는 등 물리적, 정신적 압박을 지속했다.

평양형무소에 수감된 그에게 일제는 신념을 꺾기 위해 가혹한 고문을 자행하였다. 대못을 촘촘히 박은 널빤지 위를 걷게 하는 이른바 ‘못판 고문’을 비롯하여 채찍질, 물고문 등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형벌이 이어졌다. 그는 피눈물로 찬송을 부르며 이겨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취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뒀는데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십자가의 고개 턱이 제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임이라 못 가오리.”

주기철 목사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도 ‘내 주 예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며 묵묵히 고난을 감내하였다.

오정모 사모에게 면회가 허락되었다. 주 목사의 얼굴은 백발 빛이었다. 안질이 도져 벌겍게 충혈되었고, 저고리는 혈령하여 허수아비에게 걸쳐놓은 옷처럼 보였다. 오사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옆드려 절했다. “목사님, 장하십니다. 조선의 교회가 다 무너져도 목사님이 건디시는 한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 자리에 건재합니다. 목사님, 승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승리를 끝까지 지켜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오 사모는 한없이 울었다. “주님 용서하세요. 기차 안에서만 울고 평양에 도착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겠으니 지금만 용서하세요.”

김종춘 목사

언더독(Underdog)의 반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팀을 응원한 적이 있는가? 그 팀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그 쾌감은 이루 말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경쟁에서 열세에 위치한 이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약한 팀들을 ‘언더독(Underdog)’이라고 한다. ‘under’는 아래, ‘dog’는 개를 의미하므로, 직역하면 ‘아래에 깔린 개’가 된다. 과거 개싸움 경기에서 유래했는데, 힘이 센 개가 위에 올라타고 약한 개는 아래에 깔리는 모습에서 착안되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승리 가능성이 낮아 보이거나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데, 지난 2026 월드컵에서 카보베르데나 쿠라소 같은 나라들을 ‘언더독’이라고 지칭하고 응원했다.

역사상 최고의 ‘언더독의 반란’으로 회자된 인물은 믿음의 조상 다윗이다. 블레셋의 거구 전사 골리앗. 그의 키는 약 2.9m에 달했으며, 50kg이 넘는 낫갑옷과 7kg짜리 창날을 장착했다. 반면 다윗은 어린 양치기 소년이었고 사울 왕이 준 갑옷조차 몸에 맞지 않아 헐렁할 정도로 약한 존재였다. 그럼에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언더독(약한 자)을 선택하시어 강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이 전쟁에서 당당히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17:45).

이뿐만이 아니라 말주변이 없고 두려움에 떨던 도망자 모세를 사용하여 민족의 지도자로, 혈기만 왕성하고 위기 앞에 무너진 어부 베드로를 사용하여 초대교회의 순교자로, 예수 사냥꾼이자 원수였던 바울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키우셨다. 이처럼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는 도구이다. 오늘의 언더독이라고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을 역전의 용사로 선택하시어 탑독(Top dog)이 되게 하심을 믿으라.

“이는 내가 악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12:10).

송현혜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량진 교육관 기도회

장소: 노량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 533. 9191